

농식품부, 산사태 상황실 긴급 방문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8일(목) 21시경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를 긴급 방문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실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대응상황을 점검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은 7월 18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07시 30분과 14시 부로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하였다.

* (심각) '24. 7. 18. 07:30 서울, 인천, 경기, 강원 4개 지역 → 14:0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지역 추가

송 장관은 현재 기상상황 및 선행 강우에 따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 등 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신속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송 장관은 여름철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산사태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아름 (044-201-1511)
		담당자	서기관	남기현 (044-201-1512)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책임자	과 장	최현수 (042-481-4270)
		담당자	사무관	정경화 (042-481-8844)